

Reading Matthew 4 and Facing Temptation: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March 7, 2024

Aloha MPC 'Ohana,

It's Thursday, March 7. You may recall that last Sunday I invited us all to "take up the Bible" and to read a chapter a day of the Gospel of Matthew between now and Easter Sunday. If you started that on this past Monday, then today your reading will have taken you to Matthew chapter 4.

There's a lot in Matthew 4. The chapter begins with the story of Jesus' temptation by the devil in the wilderness during the forty days after His baptism. I find it comforting to know that even Jesus experienced temptations during His life on earth. Hebrew 4:15 in fact says that Jesus was "tempted in every way." But that same verse goes on to tell us that, although he was tempted, Jesus remained "without sin" – ie. He never succumbed to any of the temptations which He faced.

But, according to Matthew chapter 4, that didn't stop the devil from trying. In fact, in Matthew 4 the devil tempts Jesus three times.

First, playing on the fact that Jesus is hungry out there in the desert, the devil tempts Him to use His divine power to turn stones into bread. But Jesus doesn't fall for it.

Then, the devil tempts Him to test God's faithfulness. And again, Jesus rebuffs Satan.

Finally, the devil brings a third temptation at Jesus. He takes Jesus up on a high mountaintop and shows Him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ll this I will give You," Satan says to Jesus, "if You will just bow down and worship me."

Needless to say, Jesus tells the devil at that point to go away, and so the devil slinks off to wait for other opportunities.

I've found myself thinking a fair bit lately about this third temptation which the devil tried to entice Jesus with. Because it was (and is) the temptation to control "the kingdoms of the world." That is, it's the temptation to wield worldly power.

Jesus of course did not fall prey to that temptation Himself. But His Church has often, sadly, succumbed to it. Because it is a very tempting *shortcut*.

It's like this. If I believe the world or my nation or my society is characterized by values which are not of God, I would probably (understandably) long to see that changed. And the Biblical way to work for such change is through outreach, evangelism, and mission. Because through outreach, evangelism, and mission people's hearts are brought to Christ, and their whole lives (including their values) are changed as a result. And, if that happens to enough people in a given time and place, then the society which is comprised of those (now changed and converted) people is itself also transformed.

But the thing is, the work of outreach, evangelism, and mission is often slow-going. It requires patience and perseverance. To borrow a phrase from Eugene Peterson, outreach, evangelism, and mission require "a long, slow obedience" on

the part of us Christians.

And that's hard sometimes – especially if we're immersed in a culture which idolizes “instant results” and “quick success.”

And so, in a setting like that, sometimes Christians get impatient, and they start to look for some shortcut – some quicker means to change (or at least to control) their society, which does not require the “long, slow obedience” of actually winning souls for Christ.

And that's where the temptation to grasp worldly power becomes enticing. Because, the thinking goes, if we Christians could just seize control of the local school board or the city council or the state legislature or the Congress or the courts of maybe even the White House, well, then we could change the world fast. Because then we could just *force* everyone (by court order, law, or executive action) to do whatever we believe they should, without having to go to all time and trouble of actual evangelization.

It sounds quite enticing – until one stops to recognize what this really is. Because what it is, is the same temptation to worldly power that the devil tried (unsuccessfully) to use to ensnare Jesus.

Sadly, the devil's had more success using this same temptation to ensnare Christians during the last two thousand years, and so he continues to try to deploy it. But speaking for myself, I think Jesus' response to that temptation is still the best: “Away with you, Satan!” (Matthew 4:10). Because there is no substitute or shortcut to the long, slow obedience of changing the world the way that Jesus said to – ie. by loving people into the kingdom, one heart and one life at a time.

Me ke aloha,

Pastor Ron

마태복음 4장을 읽고 유혹에 직면:  
2024년 3월 7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펴고” 지금부터 부활절 일요일까지 마태복음을 하루 한 장씩 읽으라고 권유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시작했다면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읽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장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도 지상 생애 동안 유혹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위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실제로 예수께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구절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이” 지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직면한 어떤 유혹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 따르면, 그것은 마귀의 시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세 번 시험했습니다.

첫째, 마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배고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사용하여 돌을 빵으로 바꾸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마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침내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번째 유혹을 가져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탄은 예수께 “당신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마귀는 다른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 슬쩍 떠났습니다.

나는 최근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시도한 세 번째 유혹에 대해 꽤 많이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국”을 지배하려는 유혹이었으며 현재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적인 권력을 휘두르려는 유혹입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교회는 슬프게도 종종 그것에 굴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유혹적인 지름길 이기 때문입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이나 나의 국가, 나의 사회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가치관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믿는다면, 나는 아마도 (이해할 만하게) 그것이 바뀌는 것을 보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위해 일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봉사 활동, 전도, 선교를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아웃리치, 전도, 선교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고 그 결과 그들의 삶 전체(가치관 포함)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면, 그 (지금은 변

화되고 개종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 자체도 변화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봉사 활동, 전도, 선교 활동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의 말을 빌리자면, 전도, 전도, 선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래, 느린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즉각적인 결과”와 ”빠른 성공”을 이상화하는 문화에 빠져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어떤 지름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더 빠른 수단은 그들의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적어도 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유혹이 유혹을 받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역 교육청이나 시의회, 주 의회, 의회, 심지어 백악관 법원까지 통제할 수 있다면 세상을 빠르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제 복음화에 시간과 수고를 들일 필요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법원 명령, 법률 또는 행정 조치를 통해) 그들이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하도록 \_강요\_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꽤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실패했던) 세상 권력에 대한 유혹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마귀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울무에 빠뜨리기 위해 이와 동일한 유혹을 사용하여 더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 유혹을 퍼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그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여전히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4:10)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고 느린 순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름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한 마음, 한 생명으로 사람들을 왕국으로 사랑함으로써.

나 알로하,  
론 목사